Nirvana

**◈노인 첫 조우 이벤트**

[주인공이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간다.]

노인: “오, 일어났는가?”

노인: “기묘한 곳에서 주무시는구만 그래.”

[노인에게 말을 건다.]

노인: “숲 속에 쓰러져있던 자네를 내가 옮겼다네.”

주인공: “여기가 어디입니까?”

노인: “이곳 말인가? 자네가 헤매어 들어온 숲 속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마을이지.”

노인: “조용하고 좋은 곳이야.”

노인: “그러는 자네는 무슨 일로 그런 숲속에 쓰러져 있었는가?”

노인: “이 마을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아닌 듯 하고.”

노인: “약초를 캐러 여기까지 들어오는 자는 없지.”

노인: “자네처럼 다부진 몸을 한 장정이 숲 속에 드러누워 있다간 곰으로 오해 받을 걸세.”

주인공: ‘다부진.. 몸…?’

[쓰러지기 직전 자신의 상태를 떠올리고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주인공]

주인공: ‘상처가.. 없어?’

주인공: ‘잃어버렸을 손가락도, 전신의 멍과 상처들도 흔적도 남지 않았다니..’

노인: “쿡쿡… 큿후후훗 그런가.. 자네도 그런 것인가?”

주인공: “무엇이 말입니까?”  
노인: “자신의 몸이 멀쩡한 게 신기하다는 얼굴이구먼. 어디서 손가락이라도 잃어버렸었나?”

노인: “자네는 유물에 사로잡혀버린 것이라네.”

노인: “쯧쯧.. 젊어 보이는데도 꽤나 험한 일을 겪은 모양이군.”

주인공: “’유물에 사로잡혀’..?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? 저는… 어떻게 된 겁니까?”

노인: “자네가 쓰러져있던 곳, 마을에서 좀 더 들어간 숲 속에 거대한 유적이 있다.”

노인: “그 유적 가장 깊은 곳에 신비한 유물이 잠들어 있지.”

주인공: “신비한… 유물?”

노인: “그렇다네. 그 유물은 옛 신인 아리아 신이 직접 만든 유물로, 있었던 일을 없는 일로, 어제를 내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.”

주인공: “그건 도대체 무슨..”

노인: “간단히 말해서,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라네.”

주인공: “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!”

노인: “그 힘은 진짜라네. 자네의 몸도 같은 이치지.”

노인: “유물이 자네의 몸을 상하기 전으로 돌려놨을 뿐일세.”

노인: “그 유물은 자신을 사용하고 싶어 할 자들을 유적으로 끌어들이지.”

주인공: ‘사용하고 싶어 할 자…’

노인: “그리고서는 자신의 힘을 조금 나눠주어 사로잡아 버린다네.”

노인: “한번 사로잡힌 이는 유물을 손에 넣을 때까지 이 숲에서, 유적에서 도망칠 수 없게 되고 말이야.”

노인: “자네에게 남은 운명은 유적에 도전해 유물을 얻는 것 뿐일세.”

주인공: ‘운명…’

노인: “그러나 유적은 유물을 지키기 위한 수호 주문과 함정들로 가득하지.”

노인: “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적에 도전했지만, 돌아온 자는 없었다네.”

주인공: “…”

노인: “두려운가? 지금까지 이끌려 온 모든 이들이 그런 표정을 지었지.”

노인: “하지만 도망치려 한 자는 없었다네. 어째서인지는 알고 있겠지?”

주인공: “시간을… 되돌리는 힘…”

노인: “유물은 ‘자신을 사용하고 싶어 할 자’ 들만을 모은다고.”

[대화 종료]

[거리로 나가는 문과 상호작용한다.]

노인: “가려는가?”

노인: “유적은 마을에서 나가는 길을 똑바로 따라가다 보면 있지.”

노인: “건투를 빈다네.”

[대화 종료]

-------

[노인에게 다시 말을 건다.]

주인공: “어떻게 유물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?”

노인: “그저 늙은이일세. 이곳에서 사람을 보는 게 취미일 뿐이지.”

노인: “늙으면 사소한 게 재밌어진다네.”

[대화 종료]

---------------

[노인에게 또 다시 말을 건다.]

노인: “건투를 비네.”

[대화 종료]

[반복]

팝업 대사

노인: “올해는 이게 처음인가?”

---

노인: “이번에는 좀 쓸 만 해 보이는군.”

---

노인: “765.. 아니 756번째인가…?”

◈엔딩 이벤트

노인: “여, 고생했군.”

노인: “덕분에 귀중한 걸 보았네.”

주인공: “…”

노인: “왜 그러나? 아직 실감이 안 드는가? 뭣하면,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고 갈 텐가?”

주인공: “귀공께서는 어느 신계에 속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나,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.”

노인: “느하하핫 들켰는가? 감사할 필요 없네. 이게 내 취미라서 말이지.”

노인: “더 이상 나 같은 부류는 할 일이 없거든.”

노인: “오히려 늙은이의 취미생활에 어울려줘서 이쪽이 감사할 따름이지.”

노인: “자, 어서 가게나. 나가는 길은 저쪽일세. 지금의 자네라면 헤맬 일은 없겠지?”

[주인공은 숲에 난 길을 향해 나아간다.]